

다섯 호랑이, 프리미어12 우승 힘 보탠다

프리미어12 출전 28명 발표
KIA 정해영·최지민·곽도규
김도영·최원준 등 5명 포함
류중일호, 13일 대만과 격돌



▲KIA 타이거즈의 투수 정해영·최지민·곽도규, 내야수 김도영, 외야수 최원준 등 5명이 프리미어12 최종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훈련에 앞서 캐치볼을 하는 김도영. /연합뉴스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우승 도전에 나설 28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우승팀' KIA 타이거즈에서는 투수 정해영·최지민·곽도규, 내야수 김도영, 외야수 최원준 등 5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투수 전상현과 포수 한준수의 프리미어12 출전은 무산됐다.

류중일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과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7일 투수 14명, 포수 2명, 내야수 8명, 외야수 4명으로 구성된 프리미어12 엔트리 28명을 발표했다.

앞서 34명의 선수가 훈련에 소집돼 최종 승선을 노렸지만 전상현, 한준수와 함께 KT 임상백, NC 김시훈, 상무 조민석, 삼성 김영웅이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FA 자격을 얻은 선발 요원 임상백이 빠지면서 한국은 박민·최승용(이상 두산), 고영표(KT), 임찬규(LG) 등 4명으로 선발진을 운영하게 됐다. 임찬규는 원태인(삼성)의 부상으로 뒤늦게 합류한 뒤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KIA의 통합 우승의 주역인 전상현은 2024시즌 긴 여정의 여파로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깜짝 활약'으로 팀의 안방 경쟁에 불을 붙인 한준수는 경험 부족으로 프리미어12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LG가 임찬규 포함 투수 유영찬, 포수 박동원, 내야수 문보경·신민재, 외야수 홍창기 등 가장 많은 6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KIA가 그 뒤를 이었고, 두산은 박민·김태연·이영하·최승용 등 4명의 투수가 프리미어12에 나선다.

KT에서도 고영표·박영현·소형준 3명의 투수가 낙점됐다. NC도 김형준과 함께 내야수 김휘집·김주원 등 3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SSG(투수 조병현·내야수 박성현), 롯데(내야수 나승엽·외야수 윤동희), 키움(내야수 송성문·외야수 이주형)에서는 2명씩 엔트리에 포함됐다. 한화에서는 투수 김서현이 유일하게 참가한다.

2024시즌 준우승팀인 삼성에서는 원태인, 김영웅과 함께 외야수 구자욱·김지찬이 모두 부상으로 프리미어 12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WBSC 랭킹 상위 12개국에 우승을 다투는 이번 대회는 A조와 B조로 나눠 예선 5경기를 진행한다. A조는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파나마, 푸에르토리코로 구성됐으며, 10일 멕시코에서 예선 일정을 시작한다.

한국은 대만, 쿠바,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호주와 B조에 편성돼 13일부터 대만에서 예선 경기를 치른다.

“전상현, 포스트 시즌 많이 던져 구위 떨어져 제외”

류중일 야구대표팀 감독

류중일(사진) 야구대표팀 감독은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최종 엔트리에 선발 투수 임상백(자유계약선수·FA)을 제외할 이유를 “컨디션이 덜 올라온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중일 감독은 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국내 마지막 훈련을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서 “임상백은 아픈 곳이 없지만 컨디션 문제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팀은 4명의 선발 투수(KT 고영표, 두산 박민·최승용, LG 트윈스 임찬규)로 운용할 것”이라며 “원래는 임상백을(선발 투수 뒤에 길게 붙이는) 1+1 요원으로 고려했는데(최일인) 투수 코치와 상의한 결과 불펜 투수들도 2~3이닝 정도를 던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 대표팀 훈련 참가자 중 임상백, 전상현·한준수(이상 KIA), 김시훈(NC), 조민석(국군체육부대), 김영웅(삼성)



을 뺀 최종 엔트리 28명을 발표했다.

류중일 감독은 전상현의 탈락에 관해 “포스트 시즌에서 많이 던진 여파로 구위가 떨어졌다고 판단했다”며 “임상백, 전상현에게 미안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김시훈과 조민석은 당초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지난 달 25일 추가로 발탁됐다. 김영웅은 어깨 통증으로 프리미어12 출전이 무산됐다.

포수는 2명으로 운용하기로 하면서 박동원(LG)과 김형준(NC)이 승선했다.

류중일 감독은 포수 한준수의 탈락을 두고 “김형준은 국제대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 경험에서 밀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는 좌완 불펜 최지민(KIA)을 명단에 넣은 이유로 “도미니카공화국, 일본, 대만에 좋은 원소 타자들이 있다”며 “좌

완 계투 한 명(KIA 곽도규)으로는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가장 중요한 경기로 꼽히는 13일 대만전 준비는 끝났다.

류중일 감독은 “대만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좌완 리여우민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두 차례 상대해봤으니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전에 등판하는 우리 팀 선발 투수는 호주전에 나설 듯하다”며 “대만전 선발과 마무리 투수는 결정했고,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여우민은 미국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산하 마이너리그 더블 A팀 아마틸로 소드 퓨틀스 소속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2차전 한국전에서 6이닝 무실점, 결승전 한국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다.

류중일 감독은 이번 대회 목표에 관해 “(슈퍼라운드 열리는) 일본에 가는 것”이라며 “조별리그엔 쉬운 팀이 하나도 없는데, 매 경기 결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광주FC, 제주 잡고 잔류한다

10일 제주서 원정경기... 지더라도 대구 패·무승부 땀 잔류
K리그2 전남, 9일 2위 서울이랜드와 '벼랑 끝' 최종전 앞뒤

주말 K리그 그라운드엔 '전쟁'이 펼쳐진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K리그가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일 울산HD가 3연패를 확정짓는 K리그1에서는 24일 최종전에 앞서 다이렉트 강등팀이 나올 수 있다.

안양이 12년의 기다림 끝에 우승을 차지한 K리그2에서는 '마지막 희망'인 승강플레이오프 티켓을 얻기 위한 최종전이 전개된다.

'생존왕'으로 통했던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승점 36)는 10일 안방에서 강등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이날 9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42)을 상대로 K리그1 37라운드 경기를 갖는 인천은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다이렉트 강등 열차에 오를 수 있다.

이날 11위에 있는 전북현대(승점 38)가 10위 대구FC(승점 40)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 인천은 내년 시즌 K리그2에서 뛰게 된다. 인천이 승리하고 전북이 무승부를 기록하더라도 득점에서 11점 차나 나기 때문에 강등행이 가까워진다.

인천은 무조건 승리를 거둔 뒤 전북의 패배를 기다려야 한다.

'강등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또 다른 무대인 전

주월드컵경기장에도 시선이 쏠린다.

전북은 9차례 정상에 오른 K리그1 최다 우승팀이지만 올 시즌에는 11위까지 추락해 강등을 걱정하고 있다.

이 경기에 따라 광주FC의 표정도 달라질 수 있다.

광주는 10일 오후 4시 30분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경우의 수 계산 필요 없이 강등권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2일 대전을 홈에서 만났던 광주는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5일 비셀 고베를 상대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ACLE) 4차전을 치렀다. 다시 또 제주로 건너가 승부를 펼쳐야 하는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커진다. 이 경기에서 흑시 패배를 기록하게 될 경우, 광주는 대구의 패배 또는 무승부

를 기대해야 한다.

대구가 승점 3을 더하지 못하게 되면 광주는 24일 전북과의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강등권에서 탈출, ACLE 일정에 집중할 수 있다.

K리그2는 9일 오후 2시 36라운드 최종전을 앞두고 있다.

K리그2 2위 팀은 승강플레이오프에 직행해 K리그1 11위 팀을 만나게 된다. 3~5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강플레이오프 티켓을 노리게 된다.

전남드래곤즈가 '키'를 쥐고 있는 모양새다.

전남은 목동종합운동장에서 2위 서울이랜드를 상대한다. 서울이랜드는 승점 58로 2위, 전남은 승점 54로 5위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이랜드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3위 충남아산(승점 57)을 따돌리고 승강플레이오프에 직행한다. 전남도 '승점 3'이 간절하다. 6위 부산이 승점 1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만큼 승리로 강등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

두 팀의 결과에 따라서 K리그2의 전체 순위가 요동치게 되는 만큼 전남은 벼랑 끝 최종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화, 심우준과 4년 50억 계약 'FA 이적 1호'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올해까지 KT 위즈에서 뛰던 자유계약선수(FA) 내야수 심우준(29)을 영입했다. 한화는 7일 "내야수 심우준과 4년 최대 50억원(보장 42억원·옵션 8억원)에 FA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2025 FA 시장 3호 계약이자, 첫 번째 '이적 계약'이다.

FA 시장이 개장한 6일 KT는 투수 우규민과 2년 총액 7억원(계약금 2억원·연봉 2억원·옵션 1억원)에 잔류 계약을 했고, SSG 랜더스도 '거포 3루수' 최정과 4년 110억원에 계약을 마쳤다.

FA 개장 전부터 한화는 스토브리그를 주도할 구단으로 꼽혔고 심우준을 영입했다.

2025 FA 시장에서는 '외부 FA'를 최대 2명 영입할 수 있다. 한화는 추가로 FA 영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내야진 보강에는 성공했다. 심우준은 2014년 2차 지명(전체 14번)으로 kt에 입단해 2015년 1군 무대에 데뷔했다.

국군체육부대에서 뛰었던 2023년과 2024년 전반기를 제외한 모든 시즌에 100경기 이상 출장



하며 '건강'도 증명했다.

심우준의 통산 성적은 172경기 타율 0.254, 275타점, 156도루(도루 성공률 0.788)다.

한화는 "심우준의 합류로 현장에서 원하는 빠른 발과 작전수행능력을 지닌 안정적 유격수 자원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다.

심우준은 "좋은 평가를 해주신 한화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FA 선수로 한화 선수단에 합류한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팀이 더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